전남도교육청, 교원 힐링캠프 운영

교육활동 침해 직무 스트레스 해소 · 건강한 교직분위기 조성

신설 '인권보호팀' 주관 총 90명 대상 보성청소년수련원서 개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한 교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원 힐링 캠프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의 교원 힐링 캠프는 교원들의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통해 교육활동 의욕을 고양하고, 위기교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갖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신설된 '인권보호팀' 주관으로 운영된다.

이번 캠프는 지난 7월 16~17일 교감을 시작으로, 7월 29일~30일에는 중등교사, 7월 31일~8월1일에는 유·초등교사 각 30명씩, 총 9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보성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캠프는 '자기 돌아보기-마음빼기 치유 명상'을 주제로 다양한 영역의 힐링 전문가를 초빙해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자기돌아보기'를 통해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 자기만의 주관적인 기억과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의 근원을 찾아 치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진단, 치유명상, 힐링을 통한 재충전, 스트레스 원인 분석, 사례 나누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캠프 후에도 후속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참여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권보호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도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도교육청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교사들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 회복이다."며, "모든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학생독립운동 90주년 '여름방학 역사특강'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관장 박치홍)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8월 30까지 유·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되는 강좌는 '90주년 학생독립운동 역사특강', '한 바퀴 버스투어 역사교실', '신나는 역사체험교실'이며, 참가자들은 기념관 전시실의 다양한 전시물을 체험하고 교과활동과 연계된 역사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90주년 학생독립운동 특강'은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학생독립운동 역사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여 11.3 학생독립운동을 중심으로 과거 학생들의 항일독립활동을 되짚어보는 현장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 바퀴 버스투어 역사교실'은 학생독립운동 전문 해설사와 함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전시 관람을 시작으로 학생독립운동 당시 참여 학교를 버스투어하며, 학생독립운동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신나는 역사체험교실'은 수준별 한국사 강의와 함께 다양한 탐구활동을 병행하며 참배 및 기념탑 방문, 독도전시관 VR체험 등의 활동도 더해진다.

이번 학생독립운동 90주년 여름방학 특강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을 통해 방학을 맞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공감하고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나라사랑 독립운동 정신의 확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지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홈페이지(student.gen.go.kr/)를 참조하거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선양과(062-221-5532~33)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이희남 교수 연구팀 최우수 논문상

2019 국제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 학술대회서 선정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우주항공공학전공 이희남 교수 연구팀이 최근 열린 '2019 국제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 학술대회(AAMF2019)'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희남 교수 연구팀은 "Multi-body Dynamic Simulation and Testing of a Control Moment Gyroscope"라는 논문으로 인공위성의 자세제어용 구동 장비인 CMG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함으로써 이번 최우수논문상(Best Paper Award)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이희남 교수와 연구팀 소속 순천대 손유정 석사과정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승우 박사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초소형위성의 자세제어용 가변속 CMG 설계 및 제어 기술"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이다.

연구팀을 이끌어온 이희남 교수는 "이번 연구가 소형 인공위성의 자세제어용 핵심 구동장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이며, 특히 가변속 제어 모멘트 자이로스코프의 국산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9 국제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 학술대회(AAMF2019)'는 국내외 항공우주 및 기계시스템 연구자들이 관련 논문 발표를 통해 최신 연구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학술회의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공공도서관, 초등학생 여름방학 프로그램 '인기'

보성공공도서관(관장 김순희)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 일정으로 진행중인 여름방학 초등학생 학년별 창의프로그램에 학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식재료를 이용해 나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의리딩푸드, 수학의 기초가 필요한 3-4학년을 대상으로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놀이 활동에 접목하는 창의수학교실이 열리고 있다. 또, 과학을 어려워하는 5-6학년을 대상으로는 생활 속 과학원리를 재미있는 실험키트로 체험해 보는 창의과학실험 프로그램이 열려 참여 학생들로 도서관이 북적북적하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려운 수학, 과학이 아닌 놀이와 체험 중심의 학습과 독서로 창의성을 일깨우고 사고력을 키우고 있다. 또한 모둠활동으로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다.

김순희 관장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잠시 학습 중심에서 벗어나 일상속의 숨은 원리를 발견하고 도서관에서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학 중 학생프로그램은 8월 2일까지 매일 운영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061-852-3893 으로 하면 된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어는 어렵다? NO! 우리는 즐겨요"

영광교육지원청, 여름방학 중학생 영어몰입캠프 운영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석)은 관내 중학교 1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영광청소년수련원에서 4박 5일 동안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영광군청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아 실시해 오고 있는 이 캠프는 외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기회가 적은 농촌 학생들에게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4박5일 동안 10~12명을 한 팀으로 원어민 교사와 보조교사의 지도 아래 스트릿 체험, 서바이벌 게임, 샌드위치 및 피자 만들기, 영어 골든벨, 영어 스피치 및 팝송 컨테스트 등 직접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영어 캠프는 실생활에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활동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 및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5일간의 캠프가 회화 위주로 흥미롭게 진행되어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친구들과 팝송 컨테스트 등을 준비하면서 영어에 친숙해지고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지켜본 김준석 교육장은 모둠별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영광군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무더위 이겨내 보아요"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식)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 20명과 함께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1주일 동안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방학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 평소 특수학급에서 하지 못한 도우아트, 냅킨아트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르게 파악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어울림 특수교사 사이언스 연구회의 교육기부를 통해 학생들에게 태양행성 프로그램 외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방학프로그램에 참여한 완도수산고등학교 황OO학생은 "방학프로그램이 끝난 게 아쉬웠다."라고 말했으며 같이 참여한 학부모님은 "우리아이들이 새로운 걸 직접 만들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완도교육지원청 김명식 교육장은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소중하고 뜻깊은 체험의 장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